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3월 21일(화) 총 7매	
담당 부서	아동정책과	담당자	• 아동복지팀장 신유선 ☎440-2881 • 담당자 정효진 ☎440-288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인(仁)품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사회 첫걸음에 동행

-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활동을 부모의 품처럼 지원 -
- 올해 98억 투입해 자립·주거·정서·취업 등 6개 분야 체계적 지원 -
- 역세권에 자립생활관 건립해 통합서비스 제공, 법률·세무·의료 등 멘토링 -
- 인천형 자립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인천시가 주거 공간 제공,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첫걸음에 동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 올해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취업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인(仁)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仁)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61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경제 수준·주거환경·교육 수준·취업률에서 일반청년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 생각이 일반청년보다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仁)품사업’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하는 일변도 사업이 아니라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을 통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립 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월 40만 원 범위에서 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도 70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민간 후원기관을 활용해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지역병원을 연계한 ‘몸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진료,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챙긴다.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 인근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총 24개 실(室) 규모의 자립생활관 및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건립할 예정이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자립 체험 등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과 시가 추진 중인 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연계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세 번째,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줄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무원, 법률, 세무, 의료 등 각 분야의 뜻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멘토단’을 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상담·치료)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중심의 체

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고립에서 자립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경계선 지능·고립 자립준비청년에게 식사 및 돌봄,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및 진로상담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적성을 알고 취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취업 의욕을 높이고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바리스타, 미용, 제과·제빵 등 기술 분야 후원자의 직장과도 연계해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생계 등의 사유로 직업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일과 직업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일자리 발굴·연계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첫걸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보호 종료 이전부터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립 지원 사업이 보호 종료 이후에 집중된 만큼 자립 준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보호 종료 이전부터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만 15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들이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 진학, 취업, 기술 등 분야별 교육을 보호 종료 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으로 보호 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 연장 아동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비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형 자립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태·욕구 파악과 인천형 자립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인천시 특성에 맞는 실제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자립준비청년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온라인 상담창구도 운영해 궁금증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상담해 줄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부모의 품처럼 자립을 지원해 주는 인(仁)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 참고 > 1. 인(仁)품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2. 인(仁)품사업 자립준비청년청년 지원계획(개요)

## 참고1

## 인(仁)품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인품사업**은 **인(仁)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취지의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브랜드명임.

- 6개 분야 체계화된 **인품**사업 수행으로 통합적인 지원책 조성
- 시설아동 보호단계부터 자립까지 자립역량 강화 및 단계별 지원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의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의 후원 등 적극 연계
  - ※ 자립생활관·체험관 구축을 위한 **민간자원 후원 및** 다양한 자원 연계
- 자립준비청년 욕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인천시 특화 자립정책 추진



## 참고2

## 인(仁)품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계획(개요)

### 1 자립생활 안정지원

#### 1-1. 생계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확대 ('22) 월 35만원 → ('23) 월 40만원
- 자립정착금 지급액 확대 ('22) 1회 800만원 → ('23) 1회 1,000만원
- 사례관리 지원 강화 ('22) 월 30만원 → ('23) 월 40만원

#### 1-2.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생계곤란 청년 지원 (신규)

- 민간자원을 활용한 생활비, 이사비 등 지원(6개 단체 후원연계)
- 관내 병원과 협약하여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진료 등)

### 2 주거안정 지 원

#### 2-1. 자립생활관·자립체험관 건립 (신규)

- 자립생활관 16개실, 체험관 4개실, 교육·상담 4개실
- 민간기업 후원금 50억원 활용, 주거안정 및 통합서비스 제공

#### 2-2.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확대)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1인 1.2억원 범위 내)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연계

### 3 심리·정서 지 원

#### 3-1. 일상생활 자문단 구성 및 소통창구 활성화 (신규)

- 시민멘토단 및 법률 자문단 운영(법률, 세무, 취업 등 자문네트워크)
-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로 소속감 및 유대 강화
- 자립준비청년과의 공감토크 운영('23. 6월)

#### 3-2. 위기 자립준비청년 심리치료 및 찾아가는 돌봄 지원 (신규)

-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시 자살예방센터 협약)
- 고립청년 안부확인 및 돌봄서비스 지원(대한적십자사 협약)

### 4 취업·진로 기회 제공

#### 4-1. 월드비전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지원(신규)

-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발굴 및 우선 채용 스토어에 장려금 지급

#### 4-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확대)

- 진로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 연계(고용노동부)

### 5 예비자립 준비청년 지 원

#### 5-1. 예비자립준비청년(만 15세 이상) 자립준비 교육 실시 (신규)

- 금융, 진학컨설팅, 취업 등 자립준비교육 (보호아동 200명)
- 시설경계선지능아동 자립역량 프로그램 지원(9개소, 50명)

#### 5-2.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 및 기술교육비 지원 (확대)

- 4개 분야(일상생활, 주거·경제, 취업역량, 심리·정서)프로그램 운영
- 학업·기술교육비 지원(1인당 100만원/10명/후원금)

### 6 자립기반 조 성

#### 6-1. 자립실태·육구 중심의 인천형 자립기반 조성 (신규)

- 자립준비청년 육구·실태 조사('23. 1월~8월, 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형 자립지원 방안 정책 수립('23. 9월)

#### 6-2.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및 실시간 자립정보 제공 (신규)

-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 홈페이지, 청년정책포털 연계